

금속노조, 12일 전국에서 경고파업 벌여

임단협·3대 입법·최저임금 1만원·특별근로감독 쟁취 결의...서울, 인천, 울산, 부산, 세종, 경주 등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7월12일 전국에서 ▲2017년 임단협 승리 ▲재벌개혁·제조업발전특별법·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입법 쟁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산별교섭 법제화를 내걸고 주야간조 총량 내 시간 경고파업을 벌였다.



정식'을 열었다.

<부산 결의대회>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아이리 등 열세 개 지회와 분회가 7월12일 경고파업을 벌이고 부산시청 녹원공원에 모여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생활임금 쟁취, 고용안정 쟁취, 풍산마이크로텍

이날 파업에 쟁의권을 확보한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대각선 교섭 사업장 단위가 참여했다. 조합원들은 사업장별로 파업 출정식을 벌이고 지역별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지부별 현안 투쟁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경주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7월 12일 수요일 13시30분 경주역 광장에서 '경주지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전 결의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7월 12일 대전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노동행위 특별근로

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수도권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7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노조할 권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 결의대회>

금속노조는 인천지부는 7월12일 오후 4시 인천 남동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 특별근로감독 실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동광기연·만도헬라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사업주 처벌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울산 결의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7월 12일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2017년 임금투쟁 승리, 금속노조 울산지부 총파업 출

문제해결 촉구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였다.

<세종충남 결의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7월12일 2018년 최저임금심의회 열리는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구 결의대회>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7월 12일 대구경북지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창원 결의대회>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7월12일 임단협 투쟁승리 파업을 지회별로 벌이고 '4사 단일노조 투쟁승리 삼성테크원지회 결의대회'에 집결했다.

“지엠 한국 철수설, 문재인 정부가 막아라”

노조·한국지엠지부, 산업은행 지분 매각 반대...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나선다

금속노조가 7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지엠 일자리 지키기 대책 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과 함께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산업은행-정부지분 매각 저지 대책위원회 출범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지엠의 수익구조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물량감소로 한국지엠 1만5천 명 노동자는 물론 30만 협력업체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이 불안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대책위를 구성해 30만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시 : 7월 12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홍영표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일자리 지키기 산업은행-정부지분 매각 저지 대책위원회

지엠과 산업은행은 2010년 산업은행이 보유지분 17.02%로 거부권 행사 가능한 특별결의에 합의했다. 이 협약은 올해 10월 16일 효력을 잃는다고 알려졌다.

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특별결의 거부권을 상실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매각하면 지엠 철수가 가능해진다”라며 “정부는 수십만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글로벌 지엠과 ‘한국지엠의

장기 발전전망이 담긴 구체 실천방안’ 협약 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는 “최근 글로벌 지엠이 푸조 시트로엥(PSA)에 오펔 유럽사업부를 매각해 한국지엠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라며 “한국지엠이 오펔 브랜드로 유럽에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해 구조조정과 물량감소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글로벌지엠의 수익구조 개편 전략에 따른 구조조정과 물량감소라고 지적했다.

노조와 한국지엠지부는 “30만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열사 투쟁 승리, 22일 장례

11일 지회와 사용자 측 합의, 서명...노조파괴 무력화와 고용보장 투쟁 계속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가 김종중 열사 투쟁에서 승리했다.

갑을오토텍지회는 7월 11일 사용자 측과 열사 투쟁 관련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열사가 목숨으로 노조파괴에 항거한 지 85일째 날이다.

구체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갑을오토텍이 유가족과 조합원들에게 애도의 뜻을 밝히는 등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회와 김종중 열사대책위원회는 11일 저녁 13차 대책회의를 열어 7월 22일 열사의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20일부터 22일 아침까지 집중조문 기간으로 정했다. 7월 22일 08시 30분 참요양병원에서 발인한다. 10시 온양온천역에서 영결식, 12시 갑을오토텍 노제, 14시 천안장례식장 화장, 16시 충남 천안 풍산공원 묘원 안장 등의 일정으로 치른다.

지회는 6월 21일 현장 복귀 뒤에

안주하지 않고 두 차례 청와대 진격 투쟁을 벌이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지회는 공장복귀 뒤 노조파괴 완전 무력화, 고용보장 등 현안 투쟁이 남아 있어 최종 승리할 때까지 힘을 다해 싸운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 지회는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갑을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연대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